



Yoon Seok-nam, famous installation artist

"어려울수록 여성들은 더욱 성숙해지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희생도 가능하게 되지요 그게 한국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믿어요

desire, even sacrificing part of what she had enjoyed as a wife, mother, and woman.

"When I first determined to start painting, it seemed I could not draw anything unless I really liked to."

Yoon first started drawing images of her mother she loved and respected. While she was gradually expanding the theme to other women, her deliberation and agony started. Then she tried to listen to her heart cordially.

That she took up installation art has not been intended. She says certain emptiness she felt in her paintings at exhibitions made her study installation art to utilize three-dimensional space. Then she polished her ideas and became fascinated by the variable and dynamic qualities of installation art.

Yoon, who is still full of youthful confidence at the age of over 60, says it was a natural transition for her from an ordinary wife and mother to a famous artist. With the power of life found in older generations, she creates harmony between serene tradition and modern sensibility, ceaselessly trying to fill her unsatisfied passion.

"The theme of my future works will be telling my story rationally. The identity of drifting contemporary women will be expressed in pink. I find pink, to our surprise, expresses Koreans' emotions very well."

One side of her studio is already painted in pink, and there are dozens of painted images which may be her or me. Her exploration of Korean women developed from their power of life to their identity, and is still going on...

By Lee Jeong-sook, Photography by Lee Hyun-jeong, Jang Yun-jung

그녀들의 방 - 축제 전야 # 999 설치 미술가 '윤석남'

솟을 대문 밑의 문설주를 잡고 하인들을 호령하던 근엄한 정경부인같고,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부터 하나 가득 출렁거리는 물통이를 요령있게 머리에 이고 다 쓰려져가는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던 촌부의 아낙같고, 하얀 분 바르고 앵두같은 입술을

> 지그시 문 채 못 남성들 앞에서 나긋나긋 춤을 추던 어느 기녀였을지도 모르는 한복 차림의 옛 여인들… 그 사이사이 부드러운 얼굴선에 자신감이 꽉 들어찬 현대적

> 정확히 9백9십9개의 여인상이 빼곡히 모인 공간 지금까지 수천년, 수백년, 수십년을 한낱 이름없이 불과 25센티의 거친 나무토막 속에 묻혀 있던 화석이었다면 이제 그녀들은 다른 시대를 사는 같은 여성작가의 손에 각기 다른 자신의 표정 자신의 몸짓으로 살아나 은은한 불빛 아래, 시와 가락을 풀수 있는 자신들의 축제 전야제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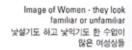
> "한 십년 전인가, 개화기 이전의 (민며느리)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남루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닐곱살 정도의 여자 아이들이 쪽을 찌고 식구들이 먹을 곡식을 절구에 넣어 찧고 있는 모습에 그녀는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파서 말이 시집간 것이지 식모나 다름 없는 질곡의 삶,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이겨낸 여성의 생명력을 화두로 떠올렸다고 한다

> 그렇게 10년 넘게 한국여성이란 전통적 주제로 가장 모던한 예술적 공간을 창조해 온 설치작가 '윤석남'은 97년 여성 최초로 '제 8회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후 꼬박 1년을 이 여인상들과 대화하듯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 (999)를 기념전시회에

> 그 때 관람객들은 두 번 놀랐다. 처음엔 그녀의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낯설기도 하고 낯익기도 한 수없이 많은 여성상들의 존재와 그 살아있는 생명력 때문에 "어려울수록 여성들은 더욱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희생도 가능하게 되고 자신을 지탱하면서 결국 한국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굳게 믿어요 그런 내면의 힘을 겉으로 끌어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

> 때문에 자신의 공간에 불러낸 여성들은 슬픔이나 초라함보다 강하고 당당해 보였다. 두번째는 작가가 던진 질문 때문이다 왜 1000이 못 됐을까

"천이 이상적인 숫자라면 하나가 모자라는 건 아직 거기 닿지 못한 한국여성들의 현실이예요 999는 이 현실을 넘어 이상에 닿으려는 열망을 상징하는 숫자죠" 잠시 후 그 옆 컴컴한 작은 공간 한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해답의 여인상을 만나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는 열린 해답을 얻게 된다







Wooden statues of Korean women with fathomless understanding and sacrifice. They might be images of you and me. 폭넓은 이해와 희생적인 여성의 이미지











